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2년 8월호

풍경

등근 풍경의 안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이 개막했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과 서울시내의 협력 공간 8곳에서 열리는 사전프로그램에는 많은 종류의 풍경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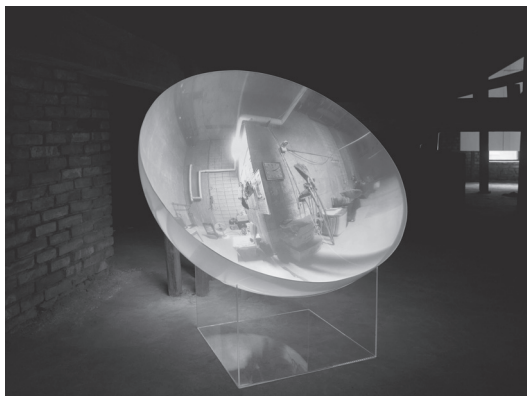
매일 변화하는 서울 도심 곳곳의 풍경은 물론이고,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의 풍경, 동굴계 감각하는 풍경의 재현, 우리의 문화를 드러내는 풍경, 생각과 인지를 다루는 풍경, 그리고 공동의 아픈 기억에 관한 풍경까지 아우른다. 한자로 쓴 ‘풍경’은 바람과 빛을 뜻하는 문자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하지만 미술에서는 우리가 풍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제한적이다. 현대 미술은 특정 대상이나 심상만이 아니라 그것에 연동하는 관념과 개념까지 재현하기에, 미술에서 말하는 풍경은 시각적 보기와 더불어 지각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 경험, 그리고 논리가 요구된다.

《정거장》에는 작품이 재현하는 풍경과 여러 작품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시장 풍경도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이는 또 한겹의 풍경은 전시가 열리는 장소인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이다. 이 건물은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사당역 주변의 바쁜 길목 한가운데에서 특유의 작고 우아한 형상으로 서 있다. 식당, 커피숍, 술집, 노래방, 찜질방, 편의점 간판이 즐비한 골목을 뒤로한 채 조용히 버티고 있는 건물 앞 마당으로 들어오면 순간 서울의 일상을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건물의 전면을 보면 벽돌로 마감된 표면에 길쭉한 돌기둥이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에는 실내로 안내하는 계단이 나와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주하는 커다랗고 무거운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길게 뻗은 복도와 2층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이 시야에 들어온다. 층마다 천장은 매우 높게 올라서있고, 그만큼 길게 뻗은 창문이 곳곳에서 건물의 전면을 둘러싼다. 안과 밖이 적절하게 연결되고 가려지는 건물 내부를 한바퀴 돌고 나면, 마치 거대한 조각품 속을 걸어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이곳은 19세기 말 대한제국 때 벨기에영사관으로 지어져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한 세기 이상을 살아온 건물이다. 급격한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과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급히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외교의 방향을 중립으로 설정했다. 1901년 대한제국과 한백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벨기에는 상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미로 조선에 총영사를 파견했고 지금의 중구 회현동에 터를 찾아 영사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벨기에영사관 건물이 완공되었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했고, 조선은 본격적인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된다. 1919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해에 벨기에영사관은 충무로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이후 요코하마 생명보험회사와 일본 해군성 무관부가, 그리고 광복후에는 해군헌병대가 건물을 차례로 사용하였고, 한국전쟁기를 무사히 넘기며 근대로 넘어온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도시공간을

재편성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전개하였고, 회현동 일대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건물은 현재의 사당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한 세기의 역사가 지나온 굴곡을 고스란히 품고있는 건축물의 서사를 알게 되면 첫눈에 낯설던 그 모습이 낯익은 형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또 감상하기에 적절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공간이다. 함부로 못을 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문화재 건물인데다가, 면이 고르지 않은 나무 바닥,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건축 장식, 건물이 지어진 이후 공간의 디자인과 별개로 더해진 에어컨, 콘센트, 방범창과 전기 배선까지, 다른 어떤 풍경을 더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장소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건물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세월의 흔적에 눈길을 주고 정돈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더해지는 풍경이 건물에 스며있는 국사를 인지하고, 적절한 무게와 시선을 찾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중첩된 풍경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감각하는 방법을 알게된다. 1960년대 서울 풍경이, 1990년대 한강 풍경이, 2000년대 서울의 지하철역 풍경이, 매향리와 경희궁 풍경이, 지금의 사당 풍경이, 바닷가와 신체의 풍경이, 현대미술 개념의 풍경이, 동시대의 미디어 풍경이 구벨기에영사관 안쪽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



- ↑ 홍철기, <동근 규철의 안쪽>, 2022
 비디오 조각, 가로 120cm(조각), 3분(프로젝션 맵핑 영상)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데이터가 만든 풍경을 읽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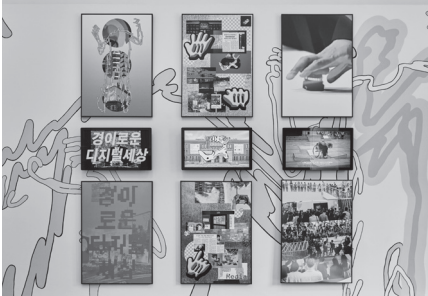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가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는 공통적으로 현대미술 작가 콜렉티브 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2022)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 모인 노승표, 이희인, 홍한나 세 작가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5년 역사의 기록에서 선별하고 추출한 시청각 데이터로 서울, 미디어아트, 그리고 비엔날레에 관한 풍경을 직조한 작품이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처음 보게되는 작품이 〈SMB 리믹스〉다. 작품을 구성하는 자료 출처만 나열해도 캡션을 두 바닥이나 채우게 된다. 이 작품은 제1회 도시와 영상 《1998-2002》(1996)에서 5개 도시의 14개 전광판에 미디어아트를 선보인 〈ART VISION CITY VISION〉 기록 영상부터 2022년 6월부터 발행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디지털 버전까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소장 자원에서 채집한 조각들로 가득하다. 첫 비엔날레였던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 사이》 홍보 영상에서 우리는 고건 전 시장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전통적인 수도 서울을 미래 지향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디지털 호모 루덴스》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의 개막식 기록은 해상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영상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 미술관 로비를 가득 채웠던 방문객의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의 예술감독, 작가와 참여자들의 음성을 새롭게 리믹스한 서사는 현대의 미술관과 비엔날레가 어떤 장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묻고 있다.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작품은 영상 세 편, 이미지 여섯 종, 그리고 월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을 주제로한 영상과 이미지는 새천년을 맞이하며 미디어문화를 통해 도시의 디지털시대를 브랜딩 하고자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원년의 포부, 그리고 이것을 표방하는 기술, 산업, 예술, 비전, 소통, 도심, 새로움과 같은 개념을 풍자한다. ‘미디어아트’를 주제로한 영상과 이미지는 물리적 형태나 외양 이면에서 비물질적 가치와 메시지를 반복하고, 전달하고, 확장하는 미디어아트의 성질을 보여준다. ‘비엔날레’를 주제로한 영상과 이미지는 공공의 가치를 담는 장소로서 미술관과 방법으로서 비엔날레를 질문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서사와 접근 방식을 가진 영상과 이미지 콜라주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하나의 벽화-풍경으로 리믹스 되어 관객의 시선을 이끈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은 역대 비엔날레에서 시도되었던 미디어아트에 관한 사유와 실천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다음 비엔날레로 향하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정거장》 풍경의 근경에는 지난 비엔날레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남서울정거장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일상에서 바라보는 원경에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사를 서술하는 위성정거장이 있다. 아니 어쩌면 남서울정거장이
원경이고, 위성정거장이 근경일지도 모른다.



↑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 전경,
(시계방향으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오브젝트 서교, 루이스의 사물들, 시민청, 2022

(왼쪽 위)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HD 비디오, 이미지 클라주, 3분 3초(서울); 4분(비엔날레); 3분 22초(미디어아트)

사진: 이의록

글림워커스: 노승표, 이희인, 홍한나

협력공간: 라운드앤드 @roundnd_cafe, 루이스의 사물들 @louis_collections, 오브젝트 서교
@insideobject, 미도파 @midopacoffeehouse, 콜로라도 프로젝트 @colorado_project,
오잇 @oeat.seoul, 시민청 @simincheong, 서울기록원 @archives.seoul

움직이는 시장 풍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가 열리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층에는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을법한 장면 그대로를 옮긴 비디오 설치작품이 있다. 각각의 오브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에는 오래된 오디오 세트, 카세트 테이프, 브라운관 모니터처럼 그 연식을 짐작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도 있고, 속옷과 양말 더미, 의복, 부채나 우산처럼 길거리 좌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물품이 함께 섞여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시장〉이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를 위해 제작하여 《이스케이프》 전시에서 소개한 이 작품은 이후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오랜 시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작품은 2013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처음으로 재설치되었고, 이번 전시에서 두 번째로 소개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약 십 년 주기로 세상 밖에 나온 셈이다. 좁고 어두운 미술관 수장고 속 박스에 켜켜이 쌓여 시간을 견뎌낸 작품은 그렇게 저절로 나이가 들어버렸다.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는 긴 사업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서울시를 첨단 도시로 브랜딩화하는 과정에서 야심차게 기획된 대형 예술 행사였다. 파견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 인원을 모두 합치면 무려 52인이나 되는 거대한 사무국이 있었고, 총감독 외에도 5명의 국내외 큐레이터와 21개국에서 온 93명/팀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221,09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당시의 기록이 작품의 형태로 전해지는건 백남준의 〈시장〉이 유일하다.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커미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국내외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고, 작가가 직접 서울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선택하고 구입한 구성품과 더불어 과거와 현대의 서울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이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 비디오에서 보여진다.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장〉을 다시 전시하면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엔지니어 이정성에게 작품 매뉴얼을 요청하게 된다. 처음 작품을 만들때도 참여했었던 이정성 아트마스터는 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버전과 다른 몇 가지 변형을 감행하였다. 예를 들면, 2000년에는 디스크 플레이어로 영상을 틀었지만, 원본 레이저 디스크가 분실되면서 디지털로 복사된 영상을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틀게된 것이다. 원래 있었던 디스크 플레이어는 여전히 작동되지만, 플레이할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장고에 보존되고 있다. 요즘은 일상에서도 CD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디스크 플레이어는 앞으로도 영원히 전시되는 일 없이 수장고에 머무르며 골동품으로 보존될 것이다.

《정거장》 전시에서도 또 다른 변동이 있었다. 작품의 상단을 구성하는 기와 구조물에 설치되는 네온에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 급히 섭외한 네온 전문가는 전압을 공급하는 트랜스 문제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며, 나머지 트랜스 기기들도

곧 고장나고 단종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는 가이드를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식되는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미디어 기기들은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작품 매뉴얼에 이정성 아트마스터는 “파손된 네온을 새로 제작하였고, 분실된 가방을 같은 상표나 색으로 재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변동이 있지만, 원작을 변형했다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썼다. 백남준은 생전에 “중요한 건 작품의 개념이지, 매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개념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잇는 동시대 서울 풍경의 재현이다. 지금으로부터 십년 뒤 작품이 다시 전시된다면 작품의 낡은 구성품은 일부 교체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작품에 당대의 동시대성을 투영하고 보게 될 것이다.



↑ 백남준, 〈시장〉, 2000

모니터 25대에 2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그리고 혼합재료,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 전경,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2

사진: 이의록

↗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의 《이스케이프》 전시 관람 전경, 서울시립박물관 (구 서울역사박물관), 200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백지숙
글,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온라인 구독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 전경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2
사진: 이의록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8월호 『풍경』

등근 풍경의 안쪽

데이터가 만든 풍경을 읽는 방법

움직이는 시장 풍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전시 전경,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2

사진: 이의록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